

## 다향오리, 전북도와 함께 오리소비촉진 활동

‘다향오리’가 전북도청과 함께 지난 2월 2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주한옥마을 경기전에서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금류 소비 부진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엔 김완주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다향오리는 전북도민 및 관광객 1000여 명이 시식할 수 있는 훈제오리와 오리버거 등을 준비해 오리고기의 안전성 전달과 소비 촉진을 벌였다.

다향오리 박은희 상무는 “시중에 유통되는 닭과 오리는 AI에 감염되지 않은 안전한 것만 유통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며 “섭씨 75도에서 5분간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하여 끓인 음식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만큼 최근 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오리·닭고기를 믿고 섭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다모아영농조합 등 4개 기관, 닭·오리 농가 살리기 소비촉진 행사 개최



AI로 고통 받는 농민들을 위해 우리 회원사인 다모아영농조합이 농협충북지역본부, 농협충북유통, 농협목우촌과 함께 닭·오리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청주하나로클럽 본점 축산코너에서 열린 소비촉진행사는 닭·오리고기 소비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축산

농가의 사기진작과 가금류 안정성 홍보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행사 기간 동안 훈제 오리고기 시식행사와 훈제계란·닭고기 증정행사를 진행했으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통생닭 1마리를 제공했다. 또한 통생닭(1마리) 2980원, 닭가슴살(1kg) 6880원, 오리훈제슬라이스(600g)를 8480원에 판매하는 등 전체 가금육 제품을 10~50% 할인 판매했다.